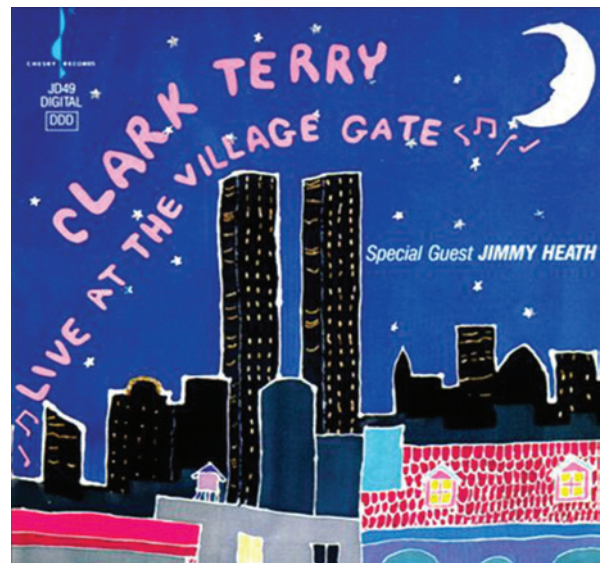


# 재즈를 듣다 II

## 쿨의 탄생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재즈의 중심 도시인 동-뉴욕, 서-샌자스시티, 남-뉴올리언스, 북-시카고에 비해 중앙에 위치한 세인트루이스는 교통의 요지이긴 했어도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이긴 하다. 하지만 두 명의 걸출한 연주자를 배출했던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트럼펫 연주자 클락 테리(Clark Terry)가 세인트루이스 출신이다. 1920년생으로 카운트 베이시, 듀크 엘링턴 악단에서 빅밴드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해 2014년 돌아가시기까지 80여 장의 음반 및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공연 실황 음반인 '빌리지 게이트 공연(= Live at the Village Gate)'을 좋아한다. 이 음반에 '네가 하려는 걸 계속해(= Keep on keepin' on)'란 곡이 있다. 이 제목을 인용한 다큐멘터리가 그가 사망한 해에 개봉했다. 노년의 트럼펫 연주자와 젊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의 교감을 다룬 내용이다.



클락 테리의 '네가 하려는 걸 계속해' / 출처 : clarkterry1.bandcamp.com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역시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1926년생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1991년 사망하기까지 약 40여 년간 재즈의 흐름을 선도한 개척자였다. 당시 흑인으로선 비교적 부유했던 가정에서 성장해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자퇴하고 찰리 파커 밴드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비밥(Be-bop)의 태동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모방하여 빨아들인 사람 중 하나다. 재즈사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한두 줄로 정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앞서 하드밥에 관한 얘길 하면서 (쿨 재즈에서의 업적을 부각하고자) 일부러 누락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적 역량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1957년 발매한 '쿨의 탄생(= Birth of the cool)'이라고 본



마일즈 데이비스의 '쿨의 탄생' / 출처 : amazon.com

다. 이 음반을 이른바 ‘명반’이라 불러도 될지에 관해선 호불호가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도도하게 흐르는 재즈의 물줄기 하나를 새로 추가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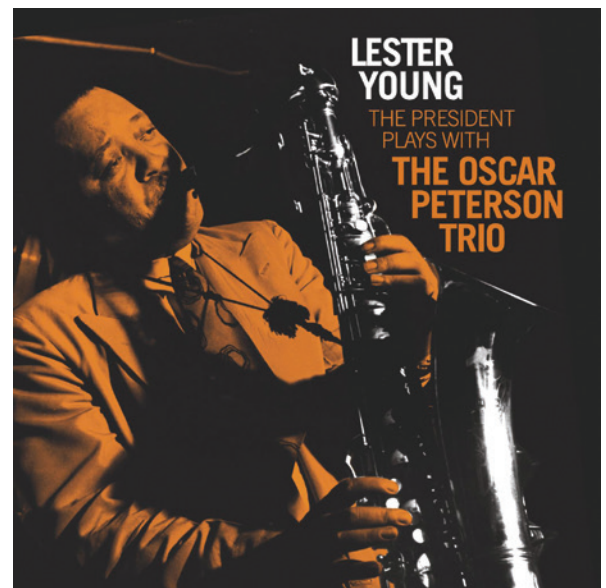
하드밥은 화산처럼 분출하는 에너지 그 자체라는 점에서 ‘핫 재즈(Hot Jazz)’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쿨 재즈는 한마디로 ‘절제’라고 할 수 있다. 하드밥에 앞선 비밥이 빅밴드 재즈에서 파생돼 나왔듯, 쿨 재즈 역시 그렇다. 레스터 영(Lester Young)이 대표적 인물이다. 캔자스 시티의 카운트 베이스 악단에서 연주한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종종 콜맨 호킨스(Coleman Hawkins)가 그의 라이벌로 언급된다. 웅변하듯 거칠고 대담한 연주를 했던 호킨스에 비해 비브라토가 거의 없는 이완된 연주를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그의 연주 방식은 빅밴드보다는 소규모 콰르텟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다. 오래된 재즈 팬들은 1957년 발표한 ‘호크가 높이 날다(= the hawk flies high)’란 음반이 국내에서 라이선스로 발매돼 친숙할 듯하다.

레스터 영의 경우엔 1954년 발매한 ‘레스터 영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Lester Young with the Oscar Peterson Trio)’ 음반을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다시 시작할 순 없어(= I Can’t Get Started)’, ‘별먼지(=Stardust)’, ‘이런 바보 같은 것들(= These Foolish Things)’ 등... 밤새 들어도 물리지 않을 것 같은 연주들이다. 테디 윌슨(Teddy Wilson) 콰르텟과 함께 1959년 발표한 ‘프레스와 테디(= Pres and Teddy)’ 역시 명반 중 하나다. 프레스(Pres)는 레스터 영의 별명인 프레지던트(President)의 줄임말이다.

다시 ‘쿨의 탄생’으로 되돌아와서, 이 음반의 컨셉은 새파란 스물한 살 젊은이였던 마일즈 데이비스가 클로드 손힐(Claude Thornhill) 악단 편곡자인 길 에반스(Gil Evans)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프렌치 혼, 튜바 등 기존 재즈에서는 별로 사용된 바가 없던 악기를 포함한 9중주단이 결성됐다. 라인업 역시 엘토 색소폰의 리 코니츠(Lee Konitz), 바리톤 색소폰의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등 훗날 쿨 재즈 흐름을 주도한 연주자들로 포진했다. 존 스웨드란 작가가 쓴 마일즈 데이비스 평전에 따르면 그는 이 새로운 앙상블에 찰리 파커로부터 영향받은 음악적 자산들을 적용하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너무나 빠르고 다채로



콜맨 호크의 ‘호크가 높이 날다’ / 출처 : amazon.co.jp



레스터 영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 출처 : fatbeats.com

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던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마도 이 아이디어가 ‘쿨’의 핵심 요소가 아니었나 싶다. 마일즈 특유의 절제된 트럼펫 연주가 어우러진 앙상블은 확실히 기존 재즈와는 확연히 달랐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밴드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독특하다. 내가 처음 이 음반을 들었을 땐 이걸 재즈라고 해야 할지, 새로운 장르라고 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비유하자면 화산이 폭발한 후 천천히 식듯이 비밥에서 ‘쿨’이 탄생하긴 했어도 아직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쿨의 탄생’이란 제목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생경하다 보니 당시엔 음반을 사놓고도 잘 듣지를 않았다. 이따금 꺼내 들으며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까지 십수 년 세월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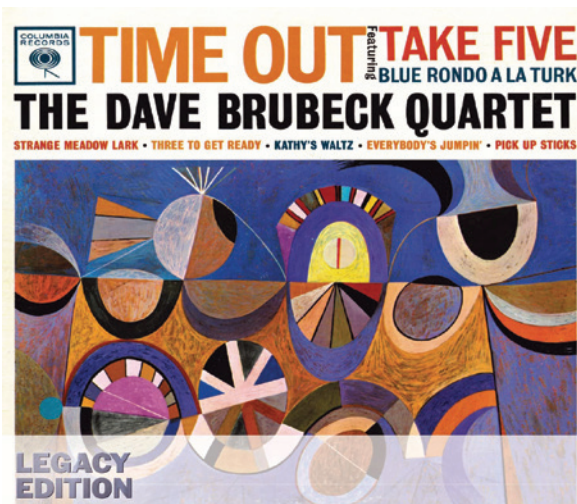
20세기 초 영화 산업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의 할리우드로 이동했던 것과 비슷하게 재즈 또한 ‘쿨의 탄생’ 이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 뉴욕의 흑인이 주도한 재즈에 대하여 백인이 주도한 연주 방식을 동네 위치에서 착안해 ‘웨스트코스트 재즈’라고 한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아는 쿨재즈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본래 쿨(Cool)은 ‘차갑다’는 의미만 있었지만, 이 무렵부터 굿(Good) 대신에 ‘좋다’는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던 설이 있을 정도로 웨스트코스트 재즈는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웨스트코스트라는 용어로 인해 기존의 미국 동부 재즈를 ‘이스트코스트 재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바지, 캘빈클라인(Calvin Klein) 마크가 새겨진 팬티, 그리고 ‘강박관념(= Obsession)’이라는 이름의 향수… 옷차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캘빈클라인이라는 미국 브랜드로부터 대충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업체의 이미지 마케팅 광고에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 콰르텟이 연주하는 ‘5분간 휴식(= Take 5)’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1959년 발표한 ‘잠깐 중지(= Time out)’란 음반 수록 곡이다.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 중 최소 3등 안에는 들어갈 음반이다. ‘테이크 파이브’는 ‘5분간 휴식’이란 본래 뜻 외에 이 곡이 흔히 볼 수 없는 박자

인 4분의 5박자 곡이란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고에 이 음악이 사용된 배경을 조금 확대해석해 보자면 쿨재즈가 여피(Yuppie)라 불리던 미국 소비자 계층으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여피는 ‘젊고 도시에 사는 프로페셔널(young urban professionals)’의 머리글자인 YUP에 히피(Hippie)를 합성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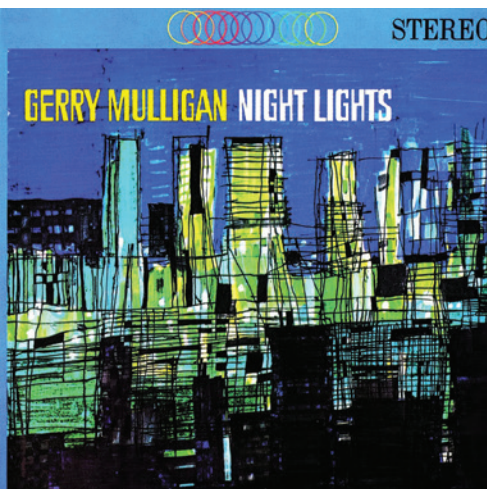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역시 웨스트코스트 재즈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로 중저음의 고즈넉한 느낌의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과 관련하여 잊지 못할 음반이 세 개 있다. 첫째, ‘밤조명(= Night Lights)’, 둘째, 반도네온 연주자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함께 만든 ‘정상 회담(= Reunión Cumbre)’, 셋째, ‘버브 레이블 재즈(= Jazz en Verve)’ Vol.2라는 음니버스 음반에 수록된 ‘마이 퍼니 발렌타인(My Funny Valentine)’ 연주. ‘버브 레이블 재즈’는 재즈 관련 자료 구하기 어렵던 시절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줬 특별한 애착이 있다. 이 음반엔 또 한 명의 웨스트코스트 재즈를 대표하는 연주자 겸 보컬인 쳇 베이커(Chet Baker)가 비틀즈 ‘썸띵(= Something)’을 독특하게 재해석한 연주가 있어 흥미롭게 들곤 했다. 이것은 1970년 발표한 ‘블러스 쳇 앤 티어즈(Blood, Chet And Tears)’란 음반 수록곡이다.

‘마이 퍼니 발렌타인’은 웬지 영화 팬이라면 1989년 개봉한 ‘사랑의 행로(= The Fabulous Baker Boys)’를, 재즈 팬들이라면 아마도 쳇 베이커를 1순위로 떠올릴 듯하다. 재즈 연주자 중에는 기구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많다. 쳇 베이커의 경우는 기구하면서 동시에 드라마틱하기도 하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웨스트코스트 재즈에서 명성을 날렸을 뿐 아니라 얼굴도 상당한 미남이었던 사람이 각종 여자 문제와 마약으로 삶이 꼬이기 시작한다. 마흔 살 무렵에는 마약 외상값을 갚지 못해 갱단에게 얻어맞아 이빨이 다 나간다. 트럼페터에겐 대단히 치명적인 사건이다. 더구나 쉬지 않고 복용한 마약은 그를 한층 더 빨리 노화시켰다. 파란만장한 일생은 젊은 날의 모습과 나이 든 후 엄청나게 바뀐 외모만으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1988년 아스텔담의 어느 호텔에서 투신자살로 추정되는 추락사로 그의 인생은 끝을 맺는다. 그가 사망한 이듬해에 ‘렛츠 겿 로스트: 쳇 베이커의 초상(= Let's Get Lost)’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데이브 브루벡의 ‘잠깐 중지’ / 출처 : amazon.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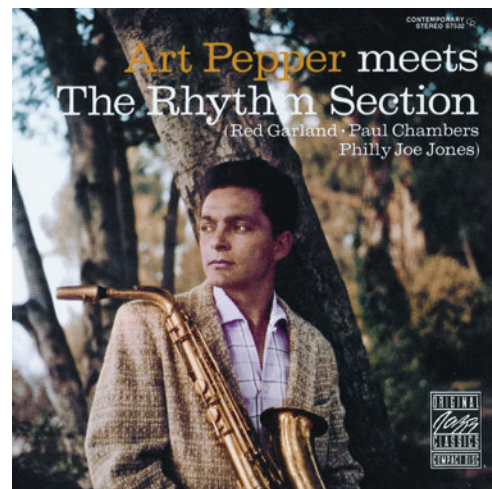




게리 멀리건의 '밤조명' / 출처 : amazon.com



첷 베이커의 '첷' / 출처 : amazon.com



아트 페퍼가 리듬 섹션을 만나다 / 출처 : amazon.co.uk

개봉했고, 2015년엔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 '본 투 비 블루 (Born to be blue)'가 개봉했다. (좋은 영화이긴 하나 사실을 많이 왜곡했다.) 대표작으로는 1954년 '노래하다(= Sing)', 1986년 '다시 노래하다(= Sing again)', 트럼펫 연주만을 담은 1959년 '첷(Chet)' 등이 있다.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Lennie Tristano)는 결이 다른 쿨재즈 흐름을 선도한 연주자다. 아홉 살 때 녹내장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다소 괴팍한 성격에 은둔자적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남긴 음반이 몇 장 없다. 기존의 쿨재즈처럼 나긋나긋한 느낌은 좀처럼 없으며 날카롭고 좀 더 예술적 느낌이 짙다. 문하에서 많은 제자를 길

러냈다. 리 코니츠가 그중 한 명이다. 아트 페퍼(Art Pepper)는 리 코니츠 영향을 받은 엘토 색소폰 연주자다. 이분의 인생 또한 기구하다. 첷 베이커처럼 잘생긴 외모와 연주 실력으로 첫 번째 음반인 '파도타기(= Surf Ride)'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승승장구했으나 마약과 범죄에 연루돼 4번에 걸쳐 총 11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대표작으로는 1957년 발표한 '아트 페퍼가 리듬 섹션을 만나다(= Art Pepper Meets the Rhythm Section)'를 꼽는다. 🎷



클락 테리의  
'빌리지 게이트 공연'



마일즈 데이비스의  
'쿨의 탄생'



레스터 영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레스터 영의  
'프레스와 테디'



데이브 브루벡의  
'잠깐 중지'



게리 멀리건의  
'밤조명'



게리 멀리건과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정상 회담'



영화  
'사랑의 행로'



첷 베이커의  
'노래하다'



첷 베이커의  
'다시 노래하다'



아트 페퍼의 '  
파도타기'



아트 페퍼가  
리듬 섹션을 만나다

이번 호 수록곡 유튜브 QR 코드